

李退溪와 山居**

小川晴久*

• 目 次 •

- | | |
|-----------------------------|--------------------|
| I. 山野 그 자체를 즐긴다. | III. 자연과 인간 |
| II. 山野와 聖賢의 가르침
(山居와 학문) | IV. 山人退溪가 가르쳐 주는 것 |

이퇴계는 많은 한시를 남기고 있으나 그것의 대부분이 자연(山水)을 노래하고 있다. 그것은 근대 이전에는 인간생활 중에 차지하는 자연의 비중이 컸던 것에도 기인하지만, 퇴계가 도회지에서 성장하지 않았고 스스로를 [山野체질의 사람]이라고 말한 것 처럼 무엇보다도 산야를 좋아했던 것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50세를 기하여 향리로 물러나서, 산중에 寒栖庵을 짓고 부터는 매일 매일 자연을 즐기며 그 가운데에서 학문에 종사했다.

퇴계의 학문과 산야생활(山居)과의 본질적인 관계를 지난 번의 발표¹⁾에서는 산야에서의 청빈한 삶이 성현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불가결하다는 점에서 살폈으나([無論固窮時, 野性諧夙昔, 苟爲道不同, 千言難剖析] 和陶集移居韻二首로부터), 이번에는 좀 더 넓게 자연(山居)과 학문의 관계를 고찰하려 한다.

* 東京대 교수

** 이 논문은 제14차 퇴계학 국제학술회위에서 발표한 것임

1) 拙稿 [이퇴계에 있어서의 산림생활의 의미]

I. 山野 그 자체를 즐긴다.

퇴계가 어린 시절부터 산야와 친숙하게 지내 온 점은 나중에도 다루겠지만, 退溪居로 물러나서는 거의 매일처럼 근처를 산책하였던 것 같다.

우선 四季折折의 자연의 정취가 그를 밖으로 불러낸다.

[산새가 짝을 찾아 우는 봄, 많은 나무들이 녹색 짙게 繁茂하는 여름, 바람과 서리가 흑심한 가을, 눈과 달이 추위 속에 얼어 빛나는 겨울, 자연은 四季마다 아름답게 모습을 바꿔 그 정취를 다할 길이 없다. 그래서 大寒·大暑·大風·大雨의 날을 빼고는 매일 외출한다][若夫山鳥嚶鳴, 時物暢茂, 風霜刻厲, 雪月凝輝, 四時之景不同而趣亦無窮. 自非大寒大暑大風大雨, 無時無日而不出.]陶山雜詠並記)

나가는 장소는 그날에 따라서 다르다.

[軒에 서서 연못을 보기도 하고, 壇에 올라 사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밭에 나가 약초를 심기도 하고, 수풀을 헤매어 香草를 채취하고, 혹은 돌에 걸터앉아 샘물과 놀고, 높은 마루에 올라 구름을 보고, 또 어떤 때는 물가에 서서 물고기를 관상하고, 배를 타고서 갈매기와 놀기도 하여 생각이 가는 그냥 그대로 소요하고 돌아다닌다.][臨軒翫塘, 陟壇尋社, 巡圃蒔藥, 搜林擷芳, 或坐石弄泉, 登台臺望雲或磯上觀魚, 舟中押鷗, 隨意所適, 逍遙徜徉.] 同)

여기서 말하는 軒·塘·壇·社는 기거하고 있던 도산서당과 그 주변의 정원이다. 軒은 서당의 동쪽 한 칸으로서 巖栖軒이고, 塘은 서당의 동편에 파여져 있는 네모난 모양의 연못으로서 淨友塘이라고 하며 蓮이 심어져 있었다. 壇은 연못의 동쪽에서 솟아나는 샘물 嶺산의 경사진 들판을 평지로 만든 것으로서, 壇의 위쪽에는 梅竹松菊이 심어져 있어 節友社라고 이름지워져 있었다. 퇴계는 집주변에 정원을 만들어서, 蓮이나 梅竹松菊을 자신의 벗으로 삼았던 것이다. 도산의 남쪽, 산에 둘러 싸여

진 경치 뛰어난 땅에 서당을 지은 것이지만, 자택의 부지내와 그 주변도 인공적인 자연으로 꾸며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이중 삼중으로 스스로를 자연으로 둘러 싸이게 한 퇴계는 자연이 그 어떤 무엇보다도 뛰어난 자신의 벗인 것처럼 여긴 사람이었다. 그의 자연을 즐기는 言行通錄 속의 問人의 다음과 같은 기록에도 잘 드러나고 있다.

[산수가 아름다운 곳, 폭포가 흘러내리는 곳이 있다면, 반드시 몸을 벗어나 혼자서 외출하여 충분히 즐기고 시를 읊조리며 돌아오는 것이었다](若有山水明麗, 瀑布倒流處, 無不抽身, 獨往玩詠而還.)

이와 같이 끊임없이 자연과 벗하여 왔던 그였기에 춘하추동을 한 번에 노래한 시가 둘이나 있으며, 그 중 하나는 놀랍게도 각각의 계절의 아침, 낮, 저녁, 밤의 전 16절로 나누어 읊고 있다.(四時幽居好吟四首, 山居四時各四吟共十六絕). 山居生活의 길지 않으면, 그리고 朝晝暮夜를 각각 규칙적으로 읊미하지 않고서는, 참으로 노래하기 어려운 것이다. 어쩌면 四時의 朝晝暮夜를 읊은 시는 세계적으로도 달리 없는 것이 아닐까 한다. 봄의 아침을 노래한 시의 제 2구에 [珍禽相和百般鳴]이 있다. 진귀한 새가 봄이 찾아 옴과 동시에 일제히 날아 오르기 시작한다. 여러 종류가 상대를 찾아 운다. 이런 저런 울음소리가 엇갈려 있는 모습인 것이다. 이 구를 보면 앞서 [山鳥嚶鳴]을 봄의 정경으로 풀이한 것이 타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봄의 낮에는 [論語]의 先進篇에 봄 옷에 춘풍을 쏘이고 노래를 읊으며 걷고 싶다고 한 曾點의 마음과 그것에 감탄한 공자의 일, 봄과 가을에는 전원의 도연명이, 여름과 가을에는 굴현이나 초사의 해석과 씨름하는 주자의 일이 노래 속에 들어 있어, 퇴계에게 있어서 자연과 학문이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또한 사계의 시는 말해 주고 있다. 이 점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짚어 보기로 하고, 퇴계의 朝晝暮夜 가운데 朝와 夜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여 두기로 하자.

중국 송대의 작품이지만 조선에서 잘 읽혀지고 있던 것으로 [夙興夜

寢箴]이 있다. 早寢早起가 아니라 빨리 일어나고 늦게 자서 면학에 힘쓰는 일을 장려한 것이다. 여기에서 수면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하고 오랫동안 심려하였던 문인의 증언에 의한 퇴계의 一日描寫로 납득이 가능하였다. 선잠이나 휴식을 그 사이에 집어 넣는 것이다.

휴식과 선잠은 저녁에서 밤에 걸쳐서 취한다. 그리고 밤 중(深夜)에 일어나서 날이 밝을 즈음까지 독서한다. 날이 밝을 즈음에 조금 자고 이른 아침에 일어난다.

[선생은 항상 돌처럼 默坐하신다. 그리고 심야까지 휴식(취침)하여, 한밤중에 일어나 이불을 무릎에 걸치고 앉아 등잔을 밝혀 책을 읽으신다. 새벽이 가까워져 다시 조금 자다가 일어나신다.](先生, 每每兀然默坐, 向晦宴息, 夜分而起, 擁衾而坐, 因取燭看書, 曉頭更小息而興.)

원문의 [問晦宴息]은 易의 隨卦 象傳의 [君子以嚮晦入宴息]을 근거로 하고 있다. 易의 이 규정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밝아지면 일어나고 어두워지면 잔다’, ‘時의 자연에 따른다’는 의미로 생각되어지지만 고대의 학자도 퇴계와 같이 한밤중에 일어나 독서하였을 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퇴계의 생활에서는 저녁부터 일단 자고, 심야에 일어나 날이 밝을 즈음까지 책을 읽고 다시 조금 잔다는 것처럼 수면이 이분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오후라도 피곤해지면 默坐하여 실질적으로 선잠을 잤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하여 밤 늦게까지의 공부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양립가능하였다. 심야에 일어나 공부하고 사색하는 모습은 문인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잘 전하여 주고 있다.

[한밤중에 일어나서 창을 열고 앉는다. 달빛과 별빛은 씻은 듯이 밝고, 강산은 넓고 넓은 가운데서도 검은 한 색 속에 조용히 가라앉아가고 있어 太古의 天地가 나누어지기 전의 혼돈의 상태와 같은 風情이다.](中夜而起 拓窓而坐, 月星明概, 江山寥廓, 凝然寂然, 有未判鴻濛底意思.)

퇴계의 夜가 심야(한밤중)란 것을 깨닫고 처음으로, 가을밤의 [月映寒

潭玉宇清, 幽人一室湛虛明, 箇中自有眞消息, 不是禪空與道冥]의 시와 겨울밤의 [眼花尤怕近澄光, 老病偏知冬夜長, 不讀也應猶勝讀, 坐看窓月冷於霜]이라고 한 시의 분위기도 전하여져 오는 것이다. 눈이 침침해져 보이지 않는다. 시력이 극도로 떨어져 있는 것일까. 독서를 할 수도 없고 단지 창밖의 달을 쳐다보고 있을 뿐 한밤중의 겨울달은 서리처럼 한층 차갑게 비친다. 이런 밤은 독서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많은 것들을 알게 된다. 겨울 한밤중의 추위를 흑독함과 함께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다.

퇴계와 자연의 관계는 四季折折의 자연을 감상한다라고 하는 관계 뿐만은 아니었다. 그는 농업에도 손을 미치고 있다. 이퇴계의 서신(편지)을 자세히 풀어 읽어, 그의 일상생활을 분명하게 제시한 권오봉씨는 퇴계의 농업에의 관심사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퇴계는 농업에 대하여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種子의 준비에 힘을 쏟았던 퇴계는 보리를 신중으로 바꾸기도 하고 適地 適期の 품종을 선택하여 식량의 증산에도 마음을 썼던 것이다. 배추·무우·생강등도 종자를 구하러 보내고, 그 適地和 씨뿌리기 좋은 시기를 지도하였다. 木綿의 경작에는 씨뿌리기의 준비(水漲)·施肥(糞田)·발갈기·씨뿌린 후의 풀 제거까지도 마음을 쓰고 있었다. 농작의 관리면에 있어서도 한밭과 장마, 벼와 보리의 熟實과 降霜, 수확의 감독에 이르기까지 배려하여 이런 저런 처리에 주의를 주고 있었다.]²⁾

벼슬길을 싫어하여 향리로 돌아가고 싶어했던 퇴계의 진의는, 향리에 晴耕雨讀하며, 자신의 가족 생계는 農作으로 하지 않으면서, 자립하여 좋아하는 학문에 힘쓰고 싶다고 하는 것에 있다. 나이를 먹어 감에 따라서 실제의 農作業은 다른 사람이 하였다고 생각되나, 퇴계는 農作業을 싫어하는 학자는 아니었다. 그가 청빈으로 일관할 수 있었던 것도 스스로 영농에 임하였다고 하는 자립성에 토대가 있었다. 그가 전원으로

2) 權五鳳 [李退溪家書의 총합적 연구] 295항

돌아 간 도연명을 뒤따른 것도 스스로 경작하는 도연명에 共鳴하였던 것이다.³⁾

II. 山野와 聖賢의 가르침(山居와 학문)

산야에서 성현의 책을 읽는 것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제 1의 의미는 일절의 세속의 성가심을 끊고 성현의 책에 전념할 수 있다고 하는 집중성과 인식성의 효과일 것이다. 집중성은 都會의 심야의 공부에서도 그 점을 살필 수가 있다. 그것이 山居에서는 낮 동안에도 기대할 수 있다.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벗어난 깊은 산 속이라면 한층 더 좋다.

그러나 山居에서의 인식상의 효과는 그것에 머물지는 않는다. 산야의 자연 바로 그것이 성현의 가르침을 해독하는 데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는 것이다.

우선 산야의 아름다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이런 저런 고민을 씻어 내어 재차 맑아진 마음으로 책을 대하게 하여 읽어서 알 수 없었던 부분을 풀어 주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

[마음이 향하는 데로 소요하고 눈에 띄어 흥을 발하고 景色과 만나서 정취를 다한다. 흥취가 최고조에 달하여 기분이 완전히 충만하여지면 돌아가는 길로 나서고 또다시 서재의 한 방으로 돌아온다. 책상을 향하여 默坐하고 다시 탐구에 전념한다. 때로는 읽어서 풀리지 않았던 곳이 풀려지기도 한다. 이 때의 즐거움이란 침식을 잊을 정도이다.]([隨意所適, 逍遙徜徉, 觸目發興, 遇景成趣, 至興極而返則, 一室岑寂, 圖書滿壁, 對案默坐, 兢存研索, 往往有會于心, 輒復欣然忘食。]⁴⁾

3) [力耕不吾欺], 도연명 [移居2수, 其2]

4) 陶山雜詠竝記

또 묵묵히 산길을 걷고 있는 사이에 생각이 한 곳에 집중되어 一点突破의 형태로 머리에 번뜩이는 것이 있다. 보통 이러한 경우 즉석에서 메모하라고 말하지만, 산야를 오랜 시간 헤매는 사이에 몇 번이고 그것을 반추하고 음미하여 확신에 이르기까지 드높일 수가 있을 것이다. 산길을 걷는 것이 가을의 수확처럼 효과가 있음을 노래한 다음의 시는 그 체험을 읊조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산에서 유희하는 것에는 어떤 이점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가을의 수확과 같은 것이라라고 답하리라.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들어가서 조용히 향을 피우고 충족된 기분에 빠져 든다. 都會人的인 세련된 곳은 없고 완전히 산사람이 되어 버렸지만 덕분에 세속의 근심은 어디에도 없다.] (遊山何所得, 如農自有秋, 歸來舊書室, 靜對香煙浮, 猶堪作山人, 幸無塵世憂.)⁵⁾

산길을 걷는 것의 이점의 갖가지가, 서재에 돌아 와서 혼자 조용히 향을 피울 때 한 방에 머물게 된 충분한 기분에 빠져들 수 있는 것을 가을의 수확에 비유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또한 산야의 자연은 성현의 가르침과 성현의 가르침의 배경(자연조건, 자연법칙, 시절 등)을 그냥 그대로 재현시켜 준다. 즉 성현의 행함과 그 가르침을 재현하여 체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易經』 등은 八卦의 구성 요소가 자연물이며 자연의 법칙성을 따른 판단이나 통찰예지 등이 많다. 또한 본고의 모두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고대로 거슬러 가면 거슬러 갈수록 인간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자연의 비중은 커져 간다. 그러므로 고대의 성현의 가르침을 익히는 것에 있어서 자연의 풍부한 조건하에서 익히는 것은 참으로 이치에 맞는 것이다. 앞에서 서술한, 봄에 생각나게 하는 『논어』 先進篇의 曾點의 이야기, 봄이나 가을에 필히 생각나게 하는 도연명의 시 등이 그 예이다.

자연(산수)은 성현의 가르침 그 자체의 올바름을 증명하여 준다. 易의

5) 遊山書事11수의 1, [還家]

자연 철학적 측면은 도회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조건이 좋다. 고대의 성현의 가르침은 자연물에 비유하여 말한 것이 많다. 예를 들면 [逝者如斯夫. 不捨晝夜]라고 한 공자의 川上의 탄식(論語 子罕篇), 愼獨을 깊은 계곡의 蘭에 비유한 군자의 자세([淮南子] 說山訓) 등은, 산수를 접하고서야 그 진리성이 증명된다.

또한 자연의 태고로부터 변함이 없는 運營을, 성인의 말씀이 시대를 넘어선 보편성과 함께 하여, 전자에 의한 후자의 진리성을 증명하고 있는 시가 있다.

[계천의 물이 밤낮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 산의 푸름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 색깔이다. 나의 마음은 무엇으로써 위안할 수 있을까. 성인의 말씀은 자연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속이는 일이 없는 것이다.] (溪聲日夜流, 山色古今茲, 何以慰吾心, 聖言不我欺.)⁶⁾

산야의 住居는 도회의 주거와 비교하여 불편하고 경제적으로도 가혹하다. 古 성현도 초야에 있어서의 고난한 생활 속에서 진리를 깨쳤었다. 그들처럼의 삶의 방법, 같은 도를 실천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말씀을 진실하게 읽어 내지 못한다라고 같은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음도 여기에서 상기시켜도 좋겠다.(無論固窮時, 野性諧夙昔, 苟爲道不同, 千言難部析.)

이상의 것처럼 살펴보면 山居는 성현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상 이상의 好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자연과 인간

山野·山水는 인간이 늙기 쉽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무자비하게 보여준다. 산에 오면은 자신이 단지 소년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6) 和陶集移居韻 2수

하는 취지의 시를 두 편 소개해 본다.

[이 추억의 산을 찾으면 자신이 인간임을 깨친다. 흐르는 개울과 복숭아 꽃은 몇 해를 지나도 조금도 변함이 없건만 너희들(퇴계의 孫들)도 언젠가 지금의 내 기분을 알겠지. 옛날 내가 너희들과 같은 소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너희들에게도 소년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重尋唯覺我爲人, 流水桃花幾度春, 汝輩他年知我感, 當時同汝少年身.)

[아득히 추억을 해 본다. 어린아이였을 때 여기에서 낚시하였던 것을. 벌써 삼십 년의 세월이 지나 버렸다. 나는 옛날의 溪山의 모습을 알고 있는지, 溪山은 지금의 내 늙은 얼굴을 알지 못한다.] (長憶童時釣此間, 三十年風月負塵寰, 我來識得溪山面, 未必溪山識老顏.)⁷⁾

수목도 신진대사를 한다. 그것은 인간과 다름이 없다. 나무 그 자체, 산 그 자체를 보았을 때, 그것은 옛날과 똑같다. 一人의 인간으로서 자연 그 자체를 대하였을 때 자신의 작음과 유한성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자각 속에도, 인간도 역시 자식이나 손자에 의해 이어받아 가는 무궁함을 갖는다는 인식도 볼 수 있다. 姪孫에게 의탁한 줌 전의 시에서 그것을 보아 알 수 있지만 [聖人不我欺]라고 한 확신에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다. 추억어린 산에 와서 예전의 소년 시대를 생각했다는 퇴계의 시를 접하고, 나는 잠시 동안 퇴계는 소년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환언하자면 그의 어린이관·동심관에 대해서이다. 그러나 자연과 함께 자연 그대로가 좋다는 老莊의인 발상은 아니고 자연 속에서 높은 산에 오르는 것과 같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퇴계밖에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 자연의 표리가 없는 無變의 運營을 배워 인간도 부단의 노력을 하는 인간상이다. 퇴계는 李卓吾의 童心說에 어떠한 비평을 가할까 흥미가 일어났지만, 예상되는 것은, 안된 일이지만 비판이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퇴계 정도로 자연과 깊은 교류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自然兒로서의 인간

7) 彌川長潭

이해도 충분히 가능했던 사람이었지 않았나 하고 추측되어 진다. 그렇지만 무자비하게도 퇴계의 준엄한 왕양명 비판이 우리들 앞에 가로막아 선다. 퇴계는 왕양명이 理를 心으로, 理를 心外의 사물, 예를 들면 인간 관계(五倫)나 초목의 理 등에 맞서는 객관적 인식을 배제한 것을 엄하게 비판하고 있다. 산중에 있어서도 산중의 자연을 잘 관찰하여, 거기로부터 많은 것을 익히고 있었던 퇴계에게 있어서 왕양명의 인식론은 비판의 대상밖에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⁸⁾

IV. 山人退溪가 가르쳐 주는 것

퇴계가 이 정도로까지 산중에서의 생활과 학문을 즐겼음을 알고, 나를 깊은 생각 속에 잠기도록 한 것이 있다. 그것을 拙稿의 맺음으로써 쓰고자 한다.

하나의 단서로서 四季의 朝晝暮夜까지 읊은 퇴계의 시를 들어보자. 이 시는 나에게 큰 충격을 전해 주었다. 지금의 나는 四季 각각의 朝晝暮夜를 어느 정도로 선명하게 이미지를 그리는 것이 가능할까. 사계의 변화해 가는 것, 一日的 변화해 가는 것, 그 어떤 것에도 나는 뒤쳐져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버스를 놓쳤을 경우, 언제나 時라고 하는 탈 것을 놓쳐 버리고 말았다고 생각한다.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定時의 버스에 타면 벨트 콘베이어에 실려져 운반되는 것 같은 時는 정확히 나를 어떤 곳에 이르게끔 하여 준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저런 것을 하고 있으므로 나는 버스라고 하는 時를 자주 놓친다. 시간을 놓친다고 하는 감각이 창피하다는 일로써 나에게서는 몸에 붙어 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가 山居四時各四吟共十六絶이라는 시를 접하고 받았던 충격은 상상하고 있었던 만큼의 것일 것이다.

8) 白沙詩教傳習錄抄傳因書其後. 陶山雜詠竝記의 [賢者之於山林, 其必有所事者矣] 참조

지금의 계절, 가을을 예로 든다면, 가을의 아침도 놓치고, 가을의 낮도 놓치고, 가을의 저녁도 놓치고, 가을의 밤도 놓치고 있는 자기 자신, 아니 가을의 낮과 가을의 밤 정도는, 그것에 착실하게 타고 있다고는 말할 수 있다. 아무리 바빠도 ‘아! 지금은 가을이다’ 라고 느끼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각의 사계 가운데 아침과 저녁, 그리고 봄의 밤 등은 확실히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이미지가 연결되지 않는 것에 의하여 나는 진짜로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의 이유는 분명히 알고 있다. 계절감이나 一日의 時節感(생각해 보면 朝晝暮夜는 一日의 춘하추동이 라고 말해도 좋겠다. 기온의 차에 주목해 본다면)을 맛 볼 정도로 느긋한 템포와는 아주 거리가 멀어 一日 가운데 해야 할 많은 것들에 싸여져서 바쁘게 매일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 바쁘게 보내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느긋한 時의 발걸음의 템포에도 따라가지 못하고, 사계나 一日의 사계에도 뒤쳐져 가고 있다고 하는 역설인 것이다. 서두른다 라는 것은 자연의 템포, 時의 흐름의 템포를 무시하는 일이다. 무시하기 때문에 그 리듬에 맞춰 갈 수 없게 되어 버리는 것이다. 24시간을 남김 없이 활용하는 생활이 되어서, 인간은 바이오 리듬(생물시간)을 깨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게 되고 있다.

여기서 易에 隨의 卦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그 象傳에 [天下, 時에 따르고 時에 따르는 義, 큼이로다.]라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時運에 따른다, 時機를 보고 그것을 벗어나는 일없이 그것에 따른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으나, 농업이 주산업이었던 시대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農時를 벗어나는 일없이 행하면 수확은 틀림없다라는 뜻으로 풀어 두고 싶다. 그리고 지금 주제에 관하여 말하면 時의 템포,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일의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싶다. 앞서서 살핀 [군자는 晦에 嚮함으로써 入하여 宴息한다] 라고 한 규정도 隨卦의 象傳인 것이다.

기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손발을 사용하여 가능한 일의 양을 몇 배이고 늘렸다. 또한 시간을 크게 단축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 대

상을 충분히 음미하거나 충분히 接觸應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얼마든지 그 예를 드는 것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서적류, 인쇄기술에 따른 대량의 카피가 가능하여 우리들은 많은 책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한 평생에 읽을 수 있는 수는 인간의 자연성에 의하여 정하여져 있다. 그러므로 많이 소유한 경우, 소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머물고, 읽지 않고 끝나는 책이 몇 권이든지 남는 일이 된다.

비행기나 자동차의 발달에 의하여 많은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사람이 친하게 사귀고 있는 사람의 수는 한계가 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과 한 번 만난 그 자체로 끝나는 일이 많다. 편지 왕래의 경우에도 그렇다. 편지는 몇 수십배 빠르게 상대방에 전하여진다. 그러나 이 빠르다는 것이禍를 일으켜 1년에 1회도 그 사람에게 편지를 부치지 않는 일이 된다. 절약 가능한 시간으로 다른 많은 것을 하고, 그래서 시간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일조차도 있어서 이와 같은 결과를 낳는 것이다.

여기에서 생각나는 것이 사적 소유가 아직 없었던 시대에 사람은 五感(五官)을 사용하여 자연과 대상 그 자체를 음미하여 왔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지고 하여 자기의 전신으로 대상을 음미하였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는(소유) 일을 시작한 이래 ‘가진다’ 라고 하는 감각을 인류는 몸에 붙이고 말았다.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하지 않고서는⁹⁾ 음미하는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감각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해 버리면 안심하여 역으로 그것을 충분히 음미하지 않는다. 언제나 음미할 수 있다고 안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의 획득물을 획득하려는 것으로 향한다. 이렇게 하여 인간은 소유하는 일에만 전념하여 점점 부족하게 되어 가는 것이다. 충분히 음미하지 않고 그 과제를 다음의 것 또 다음의 것으로 남기기 때문이

9) Karl Marx [경제학·철학 手稿] 제 3手稿 [사적 소유와 공산주의]. Marx는 가진다라고 하는 감각을 [모든 육체적 및 정신적인 감각]의 소외, 즉 [절대적인 빈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많은 것을 해치우자 라는 것도 동일하게 일의 사적 소유화라고 해도 좋겠다. 하나의 일을 깔끔하게 해치우는 데는 상당한 수고와 시간이 요하여 진다. 직장인의 일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좋은 제품은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논문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바쁘다는 것은, 기계에 의한 물적인 대량생산으로 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것에 의하여 발생한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해내려고 한다. 그러나 인간의 자연력은 한계가 있다. 시간과 체력에 있어서, 한계 지워진 물건밖에는 이용하지 못하고 한정된 사람밖에는 친하게 사귀는 일이 가능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깨닫지 못하여 인간은 많은 것을 추구하여 스스로를 피로하게 하고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있다.

山居에 철저했던 퇴계가 보여 주는 것은 인간의 자연성이라는 한계이다. 山居하는 것에 의하여 都會에서의 흘러 넘치는 것과 같은 인간 만남으로부터 스스로를 끊는다. 관직에 임하지 않고(봉록을 받지 않고), 즉 봉록에 상응하는 일의 양이라는 業績主義로부터 자신을 해방한다. 가지는 물건이라고는 성현의 책만으로도 좋다. 자신의 힘으로 풀어 읽으면, 타인의 해석을 신경 쓸 필요도 없다. 끊임없이 새로운 서적류를 사지 않으면 이러한 緊迫感에 시달리는 일도 없다. 그리고 역으로 남아 돌 지경으로 있는 것은 자연의 아름다움(勝景)이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스스로가 그것에 발을 옮기지 않고는 음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퇴계는 열심히 다리를 옮겨 그것을 충분히 음미하였다. 그는 山居하는 가운데 자신을 가장 풍요로운 인간으로 느꼈다는 것일 것이다.

그가 농업에도 손이 미치고 있었다는 것,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에도 주목하고 싶다. 즉, 경제적으로 자립·자활하여 있었던 것이다. 인간의 소외가 극한에 달하여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여겨지는 선진 공업국(北)에 있어서 기계문명이 지구 환경을 점점 파괴해 가는 지금에 있어서 우리들은 퇴계가 자연을 끊임없이 찾으며 자연에 의해 자립하여

있었던 모습으로부터 중요한 것을 배우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근대의 기계문명이 잃어버린 귀중한 것을 근대 이전의 세계로부터 발견해 내고 그것을 조금만이라도 회복하여 갈 필요가 있다. 퇴계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준다.